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송지호	영문	SONG JIHO
파견 국가	헝가리		파견 대학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교(BME)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평소 다양한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여행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 보다는 몇 개월 직접 살아보며 경험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전공 수업을 많이 놓치게 되어 어느 시기에 가야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가능한 빨리 다녀오는 게 좋다는 주위의 조언을 듣고 바로 지원했습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헝가리 교환학생은 사전에 준비할 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파견교 지원 날짜만 잘 지키고 추후에 메일로 오는 안내사항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헝가리 비자는 현지에서 발급이 가능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처리가 많이 느리고 답답해 개인적으로는 가능하시다면 한국에서 받아 가는 걸 추천 드립니다. BME는 해외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 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강신청 또한 오티 기간에 진행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지원서 등록 시에 수강할 과목 목록을 첨부하라고 하는데 실제 수강신청과 아무 상관 없으니 아무 과목이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항공권은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 구매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등록 절차 때문에 특정 날짜 이전엔 반드시 입국하라고 하니 개강 날짜 일주일 전쯤으로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날짜 안내 메일이 늦게 옵니다). 개강 전 주에 오리엔테이션으로 플랫폼 구하기, 학교 탐방, 수강신청 등의 활동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헝가리 직항 항공은 없습니다.

저는 항공권을 올 때 갈 때 각각 편도로 구입해서 각 약 50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왕복이 조금 더 싸지만(80정도) 차이도 별로 없고 언제 돌아올지 계획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편도로 구매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에로플로트 항공사 이용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안좋은 후기가 많던데 저는 좌석도 넓고 밥고 맛있고 만족했어요!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교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 중 하나입니다. 물론 헝가리 내에서는 명문대이고요. 헝가리 수도인 부다페스트의 중심에 위치하여있고 학교 바로 앞에 트램이 위치해 등하교하기 편리합니다. 학교 앞에 두나강이 흐르고 있어 산책 삼아 걸어도다니기도 좋습니다. 부다페스트에 있는 학교들은 캠퍼스가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학교는 캠퍼스끼리는 모여있지만 중간에 큰 도로가 지나가 한 구역에서 다른 구역으로 넘어가려면 꽤 시간이 걸려서 힘들어요. 오래된 학교라 대부분의 건물이 낡았고 전자, 컴퓨터 관련 학과 전공 수업은 신축건물에서 진행됩니다.

부다페스트는 사이에 강을 두고 부다, 페스트로 나뉘어있는데 놀 만한 건 페스트 쪽에 몰려있고 부다는 조용해요. 학교는 부다 쪽에 있지만 강 건너는데 오 분 밖에 안 걸려요~

저는 1월 말에 헝가리에 갔는데 3월까지의는 너무 춥고 눈, 비도 많이 오지만 4, 월 되면서 날씨 풀리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오리엔테이션 중에 수강신청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때 신청해도 되고 미리 개인적으로 해도 됩니다. 수강신청 관련 내용은 학교에서 메일로 알려줍니다. 한국과 같이 무슨 수업을 들을지 미리 정해놓고 신청이 열리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수강신청이 우리나라처럼 치열한 편은 아니지만 1교시 듣기 싫은 건 다 똑같으니까 원하는 수업은 빨리빨리 신청하세요. BME의 1교시는 8시 15분에 시작하고 한 수업에 90분입니다.

컴퓨터 전공 교환학생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오는데 솔직히 컴퓨터공학 관련 수업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수업은 교환학생 대상 수업이라면 전공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니 우리 학교에선 들을 수 없는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전공수업은 출석체크를 하지 않고 교양수업은 출석체크를 잘 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공수업의 출석률이 점점 낮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출석은 본인 마음이지만 중간고사에서 일정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기말고사를 응시할 수 없습니다. 성적이 아쉬우면 재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본시험과 재시험 중 잘 본 점수가 인정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마지막에 본 시험 점수가 인정됩니다.

저는 전공수업 두 개와 교양수업 네 개 총 6개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양은 교수님들도 교환학생들이 노는 걸 더 좋아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수업이 힘들진 않아요. 전공은 한국이랑 똑같아요.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BME는 해외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플랫을 구해야 합니다.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방, 거실 등은 공유하고 개인 방을 갖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방을 찾는 경로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가장 일반적이고 여기저기 뒤져보시면 사이트가 꽤 있습니다. 한국에서 구해서 갈 수도 있고 현지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티에서 플랫 구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도와주는 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집세는 월세고정+유틸리티 혹은 (월세+유틸리티)고정의 형태로 지불합니다. 유틸리티는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등의 비용인데 여름엔 4만원 정도로 나오고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조금 더 비싸요.

저는 방 280유로+유틸리티 해서 한 달에 약 40만원이었습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오티 기간에 BME측에서 교환학생 조를 짜서 같이 활동합니다. 거의 같은 과끼리 붙여주는 것 같으니 이때 친해지면 좋습니다. 수업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요. 하지만 오티가 끝나면 조끼리 다시 모이는 일은 없고요, 학교에 교환학생을 도와주는 학생회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여러 행사 진행하니까 소식 잘 받아보시면 됩니다! 학기 초반에 활동이 특히 많아요. 당연히 안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합니다.

부다페스트에 Morrison's 2 라는 클럽이 있는데 월요일 밤마다 교환학생 무료 입장 + 술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여기 가면 다른 학교 교환학생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학교에 마땅한 식당이 없습니다. 건물마다 점심시간에 샌드위치 등을 파는 매점이 있긴 한데 비싸고 양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오티 때 학교를 둘러보면서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식당을 하나 소개해주는데 학교 식당은 아니지만 양도 푸짐하고 그날의 메뉴는 학생할인도 해줘서 하루 종일 수업이 있다면 거기서

먹는 걸 추천합니다.

도서관 열람실이 굉장히 쾌적하고 잘 되어있어서 공부하기 좋습니다. 열람실에 이용하기 위해선 가방은 도서관 입구에 맡기고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열람실에 들어가 학생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스포츠센터도 있는데 이용해본 적은 없습니다.

동아리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가끔 게시판에 언어교환 스터디 같은 홍보지들이 붙어있습니다. 관심 있다면 게시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크게 느낀 문화적 차이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하겠다, 외국인 친구를 많이 사귀겠다,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뭐든 좋으니 큰 목표를 하나 정해서 그 하나만 열심히 해도 뿌듯한 교환학생 생활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시간이 짧으니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바로 하세요!

부다페스트는 첫인상은 별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졌어요. 주변 국가로 여행가기도 좋고~ 겨울엔 너무나도 춥지만 날 풀리면 매일매일 밖에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풍경, 야경도 아름답고~ 교통도 편리하고, 볼 데도 은근 많고, 물가도 싸고. 생각이 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한 학기 생활하기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헝가리 교환학생 정보가 많은 편은 아니라 가기 전에 많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 막상 가보면 거주증 문제 말고는(세상 답답) 다 괜찮으실 거예요~~!

부다페스트 정복하고 오세요~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다른 나라 대학생들은 어떤지 궁금했는데 역시 세상 사람 다 똑같구나 느꼈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헝가리 전통 음식



중앙시장쪽에서 학교 가는 길.
겔레르트라고 써있는 건물 옆에 있는 큰 건물이 학교예요.



부다성에서 내려다 본 세체니다리.